

여수세계박람회

로봇과 놀고 레고 파도에 '풍덩' ... 고기잡이·가루 체험까지

'박람회 놀이동산' 아이들은 즐거워

보고 즐기고 느끼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인기

여수세계박람회 열기가 서서히 끝나면서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 6일째를 맞은 17일에도 대우 해양로봇전시관 등지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은 관람객들의 줄이 이어졌다.

◇최고 히트 상품 로봇관=신기한 로봇의 매력에 끌려갈 수 있는 대우해양로봇전시관은 어린이들에게 단연 인기가 높다. 과거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는 수준에 머물던 로봇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당당히 주인공으로 대접받고 있다.

첨단 IT와 기계 등이 융합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로봇을 이번 박람회의 최고 히트 상품이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웃고 찡그리고 웃크하는 어버, 타임즈가 선정한 2010년 40대 발명품인 양증맞은 메로로봇의 4종창, 붉은 악

마로 변신한 로봇 축구시합과 K-Pop에 맞춘 응원, 로봇댄스 등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이 풍부하다.

또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를 합창하는 4대의 메로, 6.5m 거대 자이언츠 로봇 '네비', 6000m의 심해 협곡인 테리어, 일곱 가지 색상의 로봇볼과 기등도 아이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65민개 레고로 만든 파도 모형=

덴마크관에 전시된 '레고 파도 모형' (LEGO Model Ocean Wave)은 개막 전부터,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네이션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kr.youtube.com)에 지난 2일 등록된 이 동영상은 닷새 동안 8000여건의 조회를 기록했다. 레고사에서 직접 옮긴 이 동영상은 레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파도 모형을 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직원들이 파란색과 하얀색 레고 조각을 쌓아 올리며 파도 모형을 조립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모형을 조립하는 데 들어간 레고 조각 숫자만 65만8810개. 완성된 파도 모형은 높이 3.6m, 넓이 1.8m, 무게는 1.2t에 육박한다. 조립에는 무려 1318시간이 소요됐다. 완성된 모형은 해저의 모습을 프로젝터로 쇼 스크린처럼 활용된다.

'레고 파도 모형'은 아이들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들도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연안·원양어업체험=바다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연안어업체험장에서는 국내 어업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실물 어선을 전시하고 미니 양식시설도 갖추고 있다. 체험장에 마련된 연안어선에 오르면 남해안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로 장비와 어구 등을 만져볼 수 있다.

또 가두리와 조개류 양식시설을 갖춘 미니양식장에선 굴이나 흉합, 전복 등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죽방함, 통발 등의 미니어처를 통해 조상의 고기잡이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

원양어업체험장에서는 원양어선을 타고 마치 고기잡이에 직접 나서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원양어선의 조타실에서는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는 과정이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다. 퀴즈를 맞히면 조타실 환경에 장비를 직접 조작할 기회도 얻는다. 또 배에서 내리면 한기가 느껴지는 냉동 어창으로 끝바로 연결되고, 1m 크기의 참치가 잔뜩 쌓인 모습과 통조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가루야 가루야'의 인기도 폭발적이다. 체험이 끝난 뒤 몸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 주는 공기압축기(에어 컵프레서)도 마련돼 있으니 마음껏 즐겨도 문제 없다.

강진청자 빙기 체험행사도 아이들 추천 코스다. 다음달 11일까지 어린 이극장에서 진행되며 1회에 200명, 하루 최대 2000명이 무료 체험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17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여수세계박람회 해양베스트관에 전시된 바다의 위기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예측시스템'을 관람객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OOS' 한반도 바다 손바닥 보듯

〈해양예측시스템〉

여수엑스포서 첫 공개

한국해양연구원은 박람회장 해양 베스트관에 내년 6월부터 가동되는 KOOS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KOOS는 근해의 수운, 열분, 파랑, 해수면, 유숙 등 기본적인 해양 정보를 모으고 기름유출, 수색구조, 연안안전 등 재난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예측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수엑스포에서 국내 바다의 위기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예측시스템' (KOOS·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을 처음으로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로 40여 종의 관측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어도, 신안군 해안면 가거도의 수중 암초 가거초, 새만금, 독도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또 해양인이 자체 개발한 수색구조 모델 등도 포함돼 있어 해난사고 발생 시 바다에 빠진 사람의 위치와 사고 시각을 입력하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느 지점으로 이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기름화산모델은 유출된 기름의 종류 등을 파악한 뒤 얼마나 빨리, 어느 지점까지 퍼지는지를 예측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7일 여수세계박람회 대우조선해양로봇관에서 어린이들이 유행가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또 하나의 즐거움 '엑스포 여권'

각 전시관 기념스탬프 찍어 폐막 후에도 박람회 추억 간직

지난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인 '전시관 기념스탬프'와 '엑스포 여권'은 박람회의 감동을 오래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

다. 기념스탬프는 각 전시관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엑스포 여권은 과거로 가는 탐임여신처럼 폐막

후에도 두고두고 박람회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기념물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17일 "이번 박람회를 상징하는 전시관 기념스탬프와 엑스포 여권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기념스탬프는 주최국 및 참가국으로부터 전시관별 디자인을 받아 엑스포 여권 사업자인 그린피엔스가 제작했다. 이 여권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3가지 종류로 만들어졌고 국내 여권제조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제작을 맡았다. 엑스포 여권은 박람회 기념품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다. 가격 5000원.

또 엑스포여권에 찍어주는 기념스탬프는 6개의 주최국 전시관, 국제관 104개 국가, 10개 국제기구, 23개 자체 등 150여 가지로 만들어졌다.

기후환경관은 녹아내리는 지구 위에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는 북극곰을 형상화했고, 앙골라는 물고기들이 모여 만든 기하학적인 문양을 스탬프에 담았다. 또 스카이타워는 파이프 오르간과 음악,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담았고, 피자는 전통 운송 수단인 카누를 표현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국립공원 16주년 정대 모집



밀레 「국립공원 16주년 고객원정대」 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국립공원 16주년을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조)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 후원 : **광주일보**

첫번째 신청 5월 25일 (금) 당일 / 계룡산 (신행루트 : 동화사 입구 - 큰배재 - 남매탐 - 동화사) *일정 및 신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이уль렛 롯데마트광주수원점 062-616-2221

대리점 밀레광주용봉점 062-529-6200 밀레광주첨단점 062-973-7775 밀레광주월점 062-674-5888 밀레광주무등산점 062-225-2121 밀레광주이울렛점 062-385-5555

*고객문의 02) 306-7033 *대리점개설문의 02) 3153-3203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